



## 한·중 학생의 만남의 장 광운대학교 한·중 학생교류센터

홍 석 규 | 광운대학교 기획처 대외협력계장

1992년 한·중 국교수립 이전인 1989년 4월 국내 대학 중 가장 먼저 중국의 라오닝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광운대학교에서 외국인학생을 본격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소수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교류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학부를 기준으로 2003년 1학기 23명, 2학기 17명과 2004년 1학기 68명, 2학기 60명 등 2년간 168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여 2004년 12월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80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160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대학원 및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과 2005학년도 3월 입학 예정인 학생을 포함하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00명을 넘게 되며, 중국인 유학생 수는 25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광운대학교에 유학생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재학 중 평균 학점이 2.0 이상이면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 한국어 수험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과정을 무

료로 수강하게 하여 이를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대학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인 학생에 대한 토요일 치과 무료 진료 시행 등의 혜택이 유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입학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국가정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동시에 대학 브랜드의 국제화와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한·중 학생교류센터는 2003년부터 실시한 중국학과와 교육 강화 사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중국학과에서는 21세기형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부문 특성화전략을 수립하여 제1단계 특성화사업으로 포인트제도 실시와 중국어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으로 2004년 5월 11일 중국학과 차원에서 한·중 학생교류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생들과 중국학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줌으로써 중국학과 학생들이 원어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이

를 통해 어학 및 기타 영역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국 학생들에게 유학의 편의를 제공하여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 현지 유학이나 중국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어민교사'라 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능숙히 구사하고 중국을 완전히 이해하는 중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수불가결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대학에 입학한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기간 동안 한국어를 하루 빨리 능숙히 구사할 수 있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며 관련된 전공지식을 배워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상당수는 언어와 관습의 차이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진도로 학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4년 11월 24일 학교차원으로 확대하여 문을 연 한·중 학생교류센터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학생자치공간이다. 이는 또한 학교의 국제화 교육방침과 유학생 유치 노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유학생 관리 측면에서도 학교 당국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 유치 역사가 일천하고 센터가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적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계획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한·중 학생교류센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센터 운영방식

20평 규모로 복지관 4층에 위치한 센터에는 최첨단 컴퓨터 11대와 DVD 및 위성수신용 대형TV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센터를 책임지는 센터장과 관리조교 2명을 두고 있으며, 본교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 중에서 각각 5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모두 1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센터장의 지도 하에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대학의 대외협력과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는 한중유학 상담위원회, 홈스테이 운영위원회, 한국생활 자문위원회, 언어교환 운영위원회, 사이버 홍보위원회, 한중교류카페 운영위원회, 중국유학정보 운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는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을 공동회장을 두고 위원회를 책임지고 운영토록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는 센터 내에서는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실 조치한다.

### ■ 홈스테이 안내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통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지의 문제이다. 대부분 많은 유학생들이 학교 근처 교시원과 하숙집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 및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토록 지원하고, 한국 학생들에게는 국제화 능력 배양과 중국어 구사능력의 향상을 가져다주는 홈스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홈스테이를 원하는 학생은 센터에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에서는 이에 적

합한 신청자를 선발하여 홈스테이를 원하는 외국 유학생과 연결해 준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언어교환 방식과 동일하게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005학년도부터는 홈스테이를 신청하는 한국학생들에게는 학습도우미의 역할을 부여하여 매학기 500만 원의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국 학생과 유학생이 학습도우미 일지를 작성한 후 학기말에 대외협력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 ■ 언어교환 프로그램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의 모임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언어교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센터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간의 언어교환을 위한 '좋은 친구(好朋友) 맺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아직 수업을 소화해 낼 만큼 제대로 한국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입학하고 있고, 중국학과의 학생들 역시 국내에서는 원어민과 대화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과정에 처음 입학하는 중국 학생들의 경우 생소한 한국생활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교환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언어 교환을 원하는 학생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 조교는 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절한 언어교환 대상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기존의 언어교육원에서 시행되었던 언어도우미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자율적인 학생들 간의 언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어를 배우고

자 하는 30여 명의 한국학생에게는 중국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학과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국제통상학과에서는 2004년 12월 21일 학과의 학술제를 통해 결성된 중국 유학생회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 간에 보다 긴밀한 학문적, 문화적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통상학과 한·중 학생 1촌 맺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40여 명의 유학생 중 12명이 한국 학생과 1촌을 맺었으며, 이들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공과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스터디클럽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 한중 학생 공동 동아리

지속적이면서 효과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 중국학과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 제도에 중국학생들을 편입시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는 학과 학생들에게 중국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어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 온·오프라인 한국생활 자문위원회

센터 내에 한국생활 자문위원회를 두어 중국학생들이 한국 유학생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특히 낯선 한국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상담해 준다.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용이치 않거나 혹은 사소한 생활상의 애로점이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센터 홈페이지에 중국학생 전용의 질의응답란을 설치하고 자원 상담원을 두어 수시로 질문과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다.

### ■ 한중 학생 문화캠프

중국학과의 1차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수도권 지역 5개 대학 중국어 연합캠프는 학생들의 참여 열정과 사후 만족도는 높았으나 소요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타 대학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원어민 교수 대신에 본교에 유학중인 중국 학생들을 참가시켜 중국어 교육 대신 중국어를 사용하는 생활 중심의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참여가 부진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화캠프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되며, 마지막 토요일과 일요일은 문화답사 코스로 진행된다. 이 캠프는 한국의 전통문화, 놀이문화, 음식문화 등 주제별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이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어 중급 이상의 능력을 가진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강좌를 개설하여 특강, 현장 견학,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강의 주제는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의식 및 생활문화, 한국의 음악, 한국의 경제 등 한국과 관련된 강좌를 주 1회 개설한다.

### ■ 사이버 홍보대사

대학에서는 우수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

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학박람회 참가, 우수 고교와의 협약 체결, 1+3프로그램 및 2+2복수학위 프로그램, 교류대학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우수 학생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어와 중국 상황에 능통한 재학생과 중국학생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 광운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유학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외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 정보와 학사일정을 상담해 주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고 있다. 또한 해외 게시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한국 유학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중국 학생 상담교수 제도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 대부분은 체계적인 학생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갖지 못한 상태이고, 중국학과를 제외한 타 학과에서 수학하는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 때문에 담당교수와의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중 학생교류센터에서는 전문 상담교수를 위촉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상담과 학습지도 및 전공 담당 교수와의 연락과 소통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적응을 돕고 학습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향상시킨다.

### ■ 유학 경험자 커뮤니티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 온 학생들이 유학 경험자 커뮤니티를 결성하도록 유도하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동아리 제도와 연계

시켜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이 커뮤니티를 위한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해 준다.

### ■ 중국어 회화반

중국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생활비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한 중국어 과목 외에도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등 중국어 과외학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어민들과 자유롭게 회화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중국 학생들 가운데서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간을 제공하여 실비로 중국어 회화반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양자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 ■ 한·중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본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과 중국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한·중 학생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와 토론회 참가자의 발표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발표자의 언어수준에 따라 모국어 혹은 영어 사용도 가능하다. 한·중 토론회와 세미나는 한·중 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이용한 발표 경험을 통해 양국 학생의 언어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 인터넷 카페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함께 중국 영화와 중국 TV 방송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화

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한·중 학생교류센터 내에 구축했다. 센터 내의 모든 컴퓨터는 중국어 운영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수강 신청 등 각종 공지사항 안내와 매학기 중국어 및 한국어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 한국어 스피치 대회 개최

한·중 교류센터는 센터를 활용한 한국학생과 외국 유학생의 보다 활발한 언어교류를 위해 한·중 학생교류센터가 주최하는 유학생 한국어 스피치 대회(가칭)를 2005년 5월 개최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유학생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는 대외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광운대학교 한·중 학생교류센터는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한국어 및 중국어 능력 향상, 중국 학생들의 조기 적응, 학교 이미지 제고를 통한 유학생 유치, 한국 학생들의 유학 준비 지원, 중국 학생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 등과 함께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문화교류 공간이 되어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창구 역할과 광운 캠퍼스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져 'Global Kwangwoon'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